

유리 비골 피판을 이용한 하악 기저골과 치조골의 동시재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이종호 · 김명진 · 팽준영 · 안강민 · 명 훈 · 황순정

목 적 : 유리비골 피판을 이용한 긴 길이의 하악골 결손 부 재건은 널리 사용되어지며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새로이 재건된 하악골은 치아가 있는 상태의 하악골에 비하여 수직 고경이 절반 밖에 되지 않아 치아 임플란트 식립시 이상적인 치아와 치근의 관계를 가져오기 힘들었으며 기계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본 교실에서는 하악 기저골 부위에는 혈관화 유리 비골 피판을 이용하여 재건 하였으며 치조골 부위에는 비혈관화 비골 피판을 추가로 이용하는 two-strut 형태의 재건방법을 이용하였다.

방 법 : 1996년부터 2003년 까지 본원을 내원한 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 하였으며 술 후 이식 비골 피판의 성공율, 이식골의 흡수 정도 그리고 치아임플란트 식립시 기존의 one-strut방법과 비교를 시행하였다.

결 과 : 22명 중 3명의 환자에서 치조골 부위의 비골을

제거 하였으며 1명의 경우 구강내 창상 열개로 인하여 예방적으로 제거 하였으며 2명의 경우 술 후 감염으로 제거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혈관화 이식된 비골피판은 모두 성공적으로 재건 되었다. 치조골 부위에 이식된 비골의 경우 흡수율이 $13.6 \pm 7.2\%$ 였으며 이에 비하여 혈관화 이식된 비골의 경우 $3.0 \pm 3.7\%$ 의 흡수율을 보였다. 22명의 환자중 5명의 환자에서 implant가 식립 되었으며 치아-치근의 비율이 기존의 one-strut방법에서는 1 : 1.21을 보였으나 two-strut방법에서는 1 : 1.7을 보여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결 론 : 결론적으로 two-strut 비골 피판을 이용한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안전한 재건 방법으로 하순의 지지와 협부의 지지를 동시에 해주며 치아임플란트 식립시 기계적인 안정을 가져와 기존에 사용 되어진 one-strut방법에 비하여 좋은 결과를 보였다.